영광공공도서관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체험 운영

2회 걸쳐 유튜브 라이브 통해 진행

알록달록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영광공공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 소년도서관 주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의 일환으로 6월 16일은 채인선 작가, 7월 13일 미우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체험을 진행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 어린이에게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해 책과 도서관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선정된 염산면 소재 (공립)알록달록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2회에 걸쳐 운영된 독서체험은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6월 16일 채인선 작가의 '아름다운 가치 사전'을 읽고 자신의 가치를, 7월 13일 미우 작가의 '공포의 새우눈' 을 읽고 자신의 눈을 표현하는 독후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체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는 "미우 작가님이 직접 공포의 새우눈을 읽어주고 그림책 내용으로 1인 인형극을 보여줘서 너무 즐거웠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영광공공도서관 장혜란 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작가를 직접 보지 못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다."면서 "영광 지역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초등학교 4-5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놀자! 여름독서캠프'를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전화(☎061-352-2690)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순천대-여수 고용청 청년취업 간담회 개최

'청년고용협의체' 구성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근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청년고용협의체' 구성을 위한 지역 내 청년취업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와 여수고용노동지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지역대학 및 청년취업 유관기관이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순천고용센터, 순천제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청암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 순천상공회의소, 순천시청 청년센터, 순천여성인력개발센터,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 등 청년취업과 관련된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청년고용협의체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청년취업 유관기관별 청년일자리사업 현황 △각 기관 간 협업 가능 분야 공유 △ 청년구직자와 기업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방안 △지역기업과 산업에 대한 청년구직자의 인식개선 방법 △향후 청년고용협의체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1차 실무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9월에 개최 예정인 2차 간담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청년고용협의체' 를 가동한다. 향후 청년고용협의체는 유관기관 간 협업 및 역할 분담 방안과 함께 지역기업 및 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순천대학교 양숙향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청년취업 및 고용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내 취업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취업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하여, 청년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교육청, 위센터 전문 상담사 연수

17명 대상 업무현황 공유 등 협조체제 구축 목표

고흥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3일 고흥 관내 위센터와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 17명을 대상으로 '2021. 위센터와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 연수 및 슈퍼비전'을 우리청 중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각 학교의 업무 현황 공유, 상담 현장의 어려움 협의, 위기학생 발생 및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공유 그리고 위클래스와 위센터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슈퍼비전은 '봄 심리상담센터' 최옥 소장을 초청하여 개별 상담사례를 가족상담이론을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해결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기동취재본부

청암대, (사)대한안경사협회 전남안경사회장단과 간담회

청암대학교, 안경광학과는 전라남도안경사회 회장단과의 상호발전 협력과 안경 산업 현안에 대한 주제로 간담회를 최근 청암대학교 안경광학과 검안실습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수용 안경 온라인 판매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비롯하여 지역인재 우선채용 제도, 현장실습과 장학지원, 산학공동 연구 등의 시행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양일 전라남도안경사 회장은 "도수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시력 검안 및 안경 조제 가공이 온라인을 통해 시행되는 것으로, 국민의 안보건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도수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 안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안경사를 교육하는 안경광학과에서도 (사)대한안경사협회와 함께 도수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 금지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기로 하였다.

한편, 청암대학교 안경광학과는 2021학년부터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교육부로부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인가받아 전문안경사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 벤처동아리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옵티커스(이석주 지도교수) 및 VISION 동아리 운영, 전라남도 보건의료서비스 전문인력양성사업단(박성종단장) 운영 등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현장실무능력이 뛰어난 전문안경사 배출에 전념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송정도서관, 소외계층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맞춤형 교육·문화 과정

광주송정도서관이 지난 3월부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14일 광주송정도서관에 따르면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폭력피해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미혼모 가정 학생, 지적장애인 등 소외계층별 맞춤형 교육·문화 과정으로 이뤄졌다. 효과적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피해가족협의회 광주지부 ▲이주민영유아돌봄센터 ▲바람개비꿈터공립지역아동센터 ▲편한집 ▲광주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산지부 ▲공동생활가정 등의 단체와 협력했다.

광주송정도서관은 학교폭력피해학생과 가족을 위한 힐링 공예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는 한글 수업 및 책 읽어주기 교육을 지원해 학교생활과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교육청-장흥군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직업체험의 날 운영

팀별 6개소 탐방

장흥교육지원청은 13일 오후2시부터 공무원 직업체험을 희망하는 학생(장흥유치중 1학년 10명, 대덕중학교 1학년 3명)을 대상으로 장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하였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팀별 6개소를 탐방하여 하는일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농업기자재를 작동해 보는 등 실제적인 직업을 체험하며 담당 멘토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장흥=김도영 기자